

이흥재의 세상만사

금호산업의 주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논설고문

근래 지역 경제계의 최대 화제는 금호산업과 금호고속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특히 금호산업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호남을 대표하는 기업인의 교체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래 주인이었던 금호아시아나 그룹(회장 박삼구·70)과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호반건설(회장 김상열·54). 호남의 기존 맹주와 신흥 강자의 싸움이 불 만하다. 금호산업 인수를 놓고 펼치고 있는 물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잔잔하던 호수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금호와 호반 모두 호수 '호'(湖)자를 쓴다)

우선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최근 예상을 깨고 금호고속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더욱이 금호는 금호리조트를 매물에서 제외함으로써 금호고속 인수 금액을 낮추면서도 다음 달 매각이 진행되는 금호산업 인수전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까지 벌게 됐다.

하지만 호반건설 또한 호락호락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다. 호반은 최근 금호산업 주식을 전량 매각하면서 인수 의지를 확연히 드러냈다. 이는 인수전에 따른 금호산업 추가 상승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은 그동안 골프장 등 스포츠레저

산업과 KBC광주방송 대주주로서 방송 콘텐츠 사업까지 확장했으며 이번 기회에 금호인수를 통해 명실상부한 종합그룹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마치 무소의 뿔처럼 앞만 보고 나아가는 보성 출신 젊은 기업인 김 회장의 거침없는 행보를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호반건설은 빛이 한 톨도 없는 무차입 경영으로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엇그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회장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자본이 2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인수 가격 1조 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회장의 거칠 것 없는 도전

김 회장이 자신하고 있는 것처럼 호반이 자금력에 여유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래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금호아시아나가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 회장이 최고가를 써내더라도 단돈 1원이라도 박 회장이 더 내면 우선매수청구권을 쥐고 있는 금호가 승리하기 때문이다.

금호로서는 명분도 있다. 산업기반이 약한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내 대기업이라는 점, 그동안 장학사업과 문화사업 및 고용 창

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우호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자금력이다. 인수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우선매수청구권은 사라지고 금호산업의 새 주인은 최고가를 써낸 곳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회장이 최대 1조5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자금을 제때 조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우호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에서는 박 회장이 대기업 쪽에서 파트너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력 후보로는 S·K 등의 대기업이 입에 오르내린다.

여기에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알짜 매물인 금호산업을 대해 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전혀 눈독을 들이지 않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상대 경영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닌가 싶다. 박 회장이 그룹을 되찾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인수 의향을 보였다가 도의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계 내부에서는 박 회장을 도와 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게다가 금호산업을 국적항공사인 아시아나를 지배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물론 국토교

통부 등 정부의 정책적 입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금호산업을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나 펀드에 넘기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거다.

금호산업의 진짜 가치는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08%를 가진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최대주주라는 점에 있다. 즉 금호산업을 인수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거머쥘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계열사 경영권도 모두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박 회장이 그룹 재건에 사활

호반건설이 인수전에 뛰어든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금호와 호반의 뒤로 없는 치열한 인수전을 보면서 지역민들은 자칫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인수전의 이득은 채권 단 등이 쟁겨가고, 금호산업을 누가 인수하든 지나치게 인수가격만 높으면 '승자의 저주'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염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경제계에서는 금호와 호반 사이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치킨 게임'을 펼쳐 봐야 싸움의 승자는 채권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누가 물러서야

하나?

아무래도 금호산업 인수의 당위성이나 절실함에 있어서는 원주인인 금호가 앞선다는 평가가 많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호반이 물러서는 것이 좋은 모양새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아 차세대 호남기반의 대표기업이라는 꿈을 이루고 싶은 호반에 일방적으로 양보를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수성기행 기업인으로 알려진 호반의 김 회장은 최근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상의회장 추대와 금호산업 인수를 놓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상의회장 자리를 거머쥔 사실이 앞으로 금호산업 인수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

그가 한 기업의 주인이 아니라 광주·전남 경제 전체를 아우르고 함께 가야 하는 경제수장(首長)이 된 만큼, 민심의 흐름에 따라 보다 큰 그림을 그리며 어떤 결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글썽 아직까지 본인은 두 마리 토끼(상공회의소 회장과 금호산업)를 모두 잡기 위해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결과는 앞으로 지켜봐야 알겠지만.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3A호' 발사 성공

항우연, 9년간 2373억 들여 개발...3~6개월 후 본격 임무

지구 하루에 15바퀴...55cm 물체도 포착 주·야 전천후 관측



국산 위성으로는 처음으로 고성능 적외선센서를 장착, 주·야간 전천후 지구관측 시대를 열어줄 다목적실용위성 3A호(아리랑 3A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순항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국산위성으로는 처음으로 고성능 적외선센서를 장착한 다목적실용위성 3A호(아리랑 3A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주·야간 전천후 지구관측 시대가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조광래, 이하 항우연)은 26일 아리랑 3A호를 실은 드네프르 발사체가 이날 오전 7시 8분 45초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의 지하발사대(사일로)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아리랑 3A호는 발사 후 883초만에 537km 상공에서 발사체에서 분리됐고, 약 32분과 87분 후에 남극 트롤(Troll) 지상국과 노르웨이 스타발바르 지상국과 각각 교신에 성공했다. 이어 발사 5시간 56분 후인 오후 1시 4분께 대전 항우연 지상관제센터와의 교신에서 위성체의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아리랑 3A호는 앞으로 3~6개월간

위성체 및 탑재체 기능시험 등 초기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임무수행을 시작하게 된다. 옛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S-18을 개조한 드네프르 발사체는 아리랑 3A호를 싣고 예정시각에 지하발사대에서 압축가스에 밀려 올라온 다음 9초 뒤 1단 로켓엔진이 점화되면서 남쪽을 향해 날아갔다.

이후 과정은 예정된 순서에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진행됐다. 발사 279초 만에 259km 상공에서 위성을 덮고 있던 발사체 페어링이 분리됐고, 발사 883초 후에는 목표 궤도인 537km에 진입, 아리랑 3A호가 드네프르 발사체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됐다.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지구관측을 수행하기 위해 항우연이 2006년부터 2373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실용급 위성인 아리랑 3A호는 국내 최초의 적외선 관측 센서 및 국내 최고 해상도 광학 렌즈를 탑재하고 있다. 해상도 5.5m급

의 고성능 적외선 센서와 0.55m급 해상도 광학렌즈를 통해 도시 열섬효과 등 기후변화 분석과 재해재난·국도·자원·환경 감시 등에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고품질 위성영상을 하루 24시간 전천후로 공급하게 된다.

아리랑 3A호는 4년간 528km 상공을 돌면서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한다. 하루 지구를 15바퀴 돌면서 주·야간 두차례 한반도 상공을 지나며 광학렌즈로는 10분간, 적외선센서로는 2분간 한반도를 촬영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제6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 출범

위원장에 임향순 다일 회장



시각디자인과 교수, 배행민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손혜리 전 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 배우 주호성씨, 심상민 성신여대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준호 KBS 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등이다.

임향순<사진> 새무법인 다일 회장이 대통령 직속 제6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에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임 위원장을 포함한 제6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신임 위원 15명(민간위원)의 명단을 발표했다. 신임 임 위원장은 3,4기 조성위에서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전남호남향우회 중앙회 총재를 맡고 있다.

임 위원장 외에 신규로 위촉된 위원들은 부위원장을 맡게 된 김필식 동신대 총장, 이정재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남호정 전남대

조성위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에 대한 중요 사안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당면직 14명을 포함해 총 29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들의 임기는 2017년 3월 24일까지 2년이다. /윤영기자 penfoot@

세월호 참사 1주기...1만명 시민 조형물 세운다

단장에 설치미술가 임옥상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이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고 안전사회를 만들고자 시민이 참여하는 예술프로젝트가 진행된다.

환경재단 '생명을 살리는 안전사회포럼'은 2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만인(萬人)의 염원' 공동 예술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

는 1만명의 시민이 제작한 축소 인물 조각을 끼워 맞춰 약 10m 높이의 조형물을 완성하는 내용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설치미술가인 임옥상씨가 단장을 맡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윤성 조각가와 이화여대 조소과 김종구 교수 등이 기획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의원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진료내용

라식 LASIK **라섹 LASEK** **ICL 안내렌즈삽입술** **SMILE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개를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운암동 광안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원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